

인터넷 기사 검색을 통한 유휴농지 활용유형 도출

김경찬·박창원·조석호·박준호*·손용훈**

한국농어촌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tudy on Utilizing Type of Idle Farmlands by Searching Internet Articles

Kim, Kyoung-Chan·Park, Chang-Won·Cho, Seok-Ho·Pak, Jun-Hou*·Son, Yong-Ho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orea National Park Servic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For the purpose of drawing a representative type of utilizing idle farmland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newspaper articles about cases of utilizing idle farmlands in the past decade using Internet search engines. Prior to this, it clarified a concept of idle farmlands to raise accuracy of searching articles, and selected NAVER as a search engine. It set “idle farmland”, “abandoned land”, and “utilizing” as basic search words in search option, and also set search period from 1st of January in 2004 to 31st of December in 2013. This study primarily searched 1,593 articles, and extracted 165 articles excluding overlapped and unrelated articles. Furthermore, it investigated extracted articles by date, media, headline, content of use, region(province), particular area(city and country), main agent, item and keyword 1, 2, 3 for proper use. This study also examined frequencies by year according to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as well as regional differences through frequencies by regional groups and chronology. Furthermore, it drew a diagram of frequency flow of keyword 2, 3 with each keyword 1 as the central figure in order to draw various types of using idle farmlands. Through the diagrams, this study drew 9 using types such as ①community service. agriculture type, ②high income. agriculture type, ③sightseeing. landscape. agriculture type, ④livestock. agriculture type, ⑤weekend farm type, ⑥high income. woodland type, ⑦ecology. landscape. woodland type, ⑧agricultural work-study type, ⑨ecological environment type.

Key words : Idle Farmland, Utilizing Type

1. 서 론

우리나라 농지의 면적은 1965년 2,318천ha로 최대치였으며, 1990년에는 2,109천ha, 2012년에는 1,730천ha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농업전망 2014(KREI)에 따르면 2023년에는 1,597천ha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와 맞물려 2008년도와 2010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곡물파동으로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30여개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는 OECD 식량자급률 최하위인 우리나라에 대해

“농지의 지속적 감소”, “식량자급 위기” 등의 표현을 활용하며 미래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지면적 유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유휴농지의 활용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Kim et al., 2014a).

유휴농지 관련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Park et al.(2005)은 우리나라 휴경농지·유휴지 관련 제도와 정책 및 일본의 휴경농지 대책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방향으로 휴경농지·유휴지의 발생 예방·억제와 사후 복구·활용 등 복합적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농지정책이 아닌 지역정책의 관점에서 그 방향을 도출하여, 정책의 실천

Corresponding author : Son, Yong-Hoon

Tel : 02-880-8107

E-mail : sonyh@snu.ac.kr

을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언하였다. Choi et al.(2005)은 유휴농지의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유휴농지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로는 친환경농업으로의 활용사례, 전원주택으로 활용,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 농산물가공공장으로의 활용, 농촌관광으로의 활용, 농촌어메니티 보전사례 및 산림으로의 복원사례 등이며,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틀과 다원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으로는 유휴농지 조사의 전면 실시,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주민편의 보장, 그리고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Kim et al.(2007)도 유휴농지의 현황과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유휴농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관리방안으로 유휴화를 예방하는 방안,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방안, 유휴농지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적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된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2008)은 전국 8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유휴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휴농지 해소방안에 대해 농업인, 공무원, 도시인, 연구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업적 및 비농업적으로 이용된 유휴농지 활용사례에 대해 조사하였고, 유휴농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농업적 재 활용,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방안, 비농업적 활용 등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유휴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hee et al.(2009)은 유휴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활용된 사례를 Media 조사·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조사된 사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Mass media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목적에 따라 경관 유형, Bio-tope 유형, 관광유형, 사회봉사유형, 교육유형 및 생산유형 등 6개 활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Bio-tope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휴지에 대한 환경·생태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Bea et al.(2010)은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불제도 확대를 통한 발생방지와 농업적 이용과 함께 다원적 기능으로의 활용을 제안하였고, 유휴농지 활용방안을 유형화하여 사업유형별 추진체계와 재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충남 공주와 제주 애월 등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유휴농지 활용 사례계획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Kim et al.(2014a)은 유휴농지 관련 정책사업과 유휴농지화 방지 기능을 갖는 국내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작방기지 재생 이용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과 현재 시행되는 각종 농림축산식품사업 등을 기초로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9개의 정책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 et al.(2014b)은 유휴농지를 농업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전국 30개 유휴농지에 적용하여 개별 유휴농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기간 농업적 활용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유휴농지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설정 연구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고, 농업적 활용을 위한 정책사업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표개발을 통해 유휴농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에 더하여 유휴농지를 활용한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Rhee et al.(2009)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기사를 바탕으로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휴농지 활용 정책사업을 시작하려는 현 시점에서는 이에 더하여 최근의 활용사례까지 포함된 활용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휴농지의 활용사례가 보도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인터넷 신문 기사를 조사하고, 이 기사들을 바탕으로 활용사례에 대해 분석하여, 대표적인 유휴농지 활용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유휴농지 범위 설정

본 연구에서는 유휴농지 활용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10년간 유휴농지 활용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유휴농지 활용사례 기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유휴농지 관련 개념들은 여러 문헌에서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는데, 먼저 유휴농지는 농지법과 Choi et al.(2005),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이하 ‘KRCC’)(2008)이 정의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유휴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②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

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③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④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⑤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등 다섯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유휴농지는 지목이 농지이어야 하며, 현재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중 지력증진·토양개량·보전 등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협의·농지전용신고 등을 거쳐 타 용도로 전용될 농지, 그리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제외한 모든 농지를 유휴농지로 보고 있다. 이 개념에서는 간단히 현재시점의 경작 여부만으로 유휴농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경작이 안 된 기간의 길이, 토지 소유자의 경작 의지, 영농여건, 생산기반정비가 잘 된 우량농지인지의 여부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Choi et al.(2005)은 유휴농지의 개념을 “농업경영을 유지할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중 우량농지가 아닌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 여건변화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놓이게 될 농지 가운데 비우량농지를 유휴농지로 설정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의미하는 우량농지는 유휴상태이더라도 유휴농지 범위에서 제외되며, 유휴농지의 범위를 물리적 조건이 열악한 한계농지 등을 중심으로 한 비우량농지에 국한하고 있다. 그리고 KRCC(2008)은 유휴농지를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영농조건 불량, 노동력 부족, 부채지주 소유, 기타 사유로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포기한 농지 중에서 농지의 형태를 상실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서, 앞으로 농지로 이용할 경우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한 농지”, 둘째, “농지 내에 수렁이 있거나 역새풀, 나무가 자라는 등 농기계 및 역축을 사용하여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로 정의하는 등 경작을 포기한 기간과 영농조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정하고 있다.

유휴농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휴지라는 용어가 통계청의 경지면적통계에서 2011년까지 사용되었다. 경지면적 통계상의 유휴지는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포기한 경지 중 경지로서의 형태를 상실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서 앞으로 경지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농지 즉, 향후 경지로 이용할 경우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한 농지”로 정의되는데, 비 경작기간과 영농조건에 대해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휴농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휴경농지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휴경농지를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 시점의 경작여부만으로 유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KRCC(2008)은 휴경농지를 “농지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함에도 1년 동안(당해연도)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고 영농조건 불량, 노동력 부족, 부채지주 소유, 기타 사유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농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KRCC(2008)이 정의했던 유휴농지보다 미경작 기간과 영농조건불리 등에서 휴경농지를 조금씩 양호한 농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유휴농지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작방기지는 경작을 방기(放棄)한 농지, 즉 포기한 농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경작방기지는 “조사일 이전 1년 이상 식부되지 않고 앞으로 수년 안에 다시 경작할 의지가 없는 농지”로 정의되며, 미경작 기간과 토지소유자의 경작 의사에 대해 포함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정리된 각각의 정의들을 영농조건불리를 x , 휴경기간을 y 로 설정한 xy 좌표에 표시하였다. x 좌표와 관련해서는 농지법의 유휴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휴경농지, 일본의 경작방기지가 물리적인 영농조건이 불리함에 대한 내용을 정의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Choi et al.(2005)의 유휴농지 정의에는 우량농지가 아닌 농지라는 표현으로 우량농지보다는 영농이 불리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KRCC(2008)의 휴경농지의 정의에는 “영농조건 불량”이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유휴지 정의와 KRCC(2008)의 유휴농지 정의에는 농지의 형태를 상실하고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한 농지라고 영농조건이 매우 불량함을 다른 표현을 빌어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y 좌표인 휴경기간과 관련해서 농지법의 유휴농지 정의에는 휴경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고,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휴경농지 정의는 현재시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Choi et al.(2005)의 유휴농지 정의와 KRCC(2008)의 휴경농지, 그리고 일본의 경작방기지 정의에는 휴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 통계청의 유휴지, KRCC(2008)의 유휴농지 정의에는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경작의지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작방기지는 경작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KRCC(2008)의 유휴농지에서는 경작을 포기한 농지라고 경작할 의사가 없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Table 1. Concept Definition of Idle Farmland

구분	법제 및 문헌	내용
유휴농지	농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라 정의하고 있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4.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Choi et a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을 유지할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중 우량 농지가 아닌 농지
	KRCC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건 불량, 노동력 부족, 부재지주 소유, 기타 사유로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포기한 농지 1. 농지의 형태를 상실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농지로 이용할 경우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한 농지 2. 농지 내에 수렁이 있거나 역새풀, 나무가 자라는 등 농기계 및 역축을 사용하여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유휴지	경지면적 통계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포기한 경지 중 경지로서의 형태를 상실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경지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향후 경지로 이용할 경우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으로 정의
휴경농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
	KRCC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함에도 1년 동안 (당해 연도)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고 영농조건 불량, 노동력 부족, 부재지주 소유, 기타 사유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농지
경작방기지 (耕作放棄地)	일본농림업 센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일 이전 1년 이상 식부되지 않고 앞으로 수년 안에 다시 경작할 의지가 없는 농지

출처 : Kim et al.(2014a)을 인용하여 재편집

표로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Kim et al.(2014a)은 유휴농지의 개념을 “지목상 농지(전, 답, 과)로서 지력회복 등의 농업적 목적으로 휴경하는 농지가 아닌, 영농조건 불량, 노

동력 부족, 부재지주 소유 등의 사유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로 정의하였다. 이때 농업적 목적으로 휴경하는 농지는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등이며, 이러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유휴농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벼농사를 짓고 난 늦가을부터 모내기하기 전 이른 봄까지 경작되지 않는 농지도 휴경농지라 지칭하는데, 이때의 휴경농지도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유휴농지의 방향과 다르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유휴농지와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의 한계농지, 농지법의 영농여건불리농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휴토지 등 각각의 정의에 휴경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농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휴농지의 범위에서 모두 제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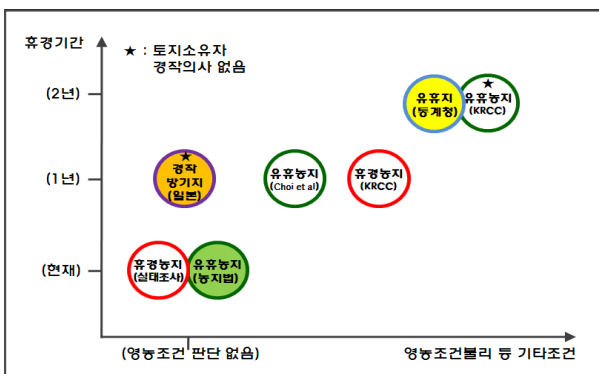


Figure 1. Idle Farmland's Location Map of Fallow Period and Agricultural Conditions

출처 : Kim et al.(2014a)을 인용하여 재편집

2. 인터넷 기사의 범위 및 검색방법

인터넷 뉴스 검색과 관련하여 Kim and Choi(2010)는 국내 10개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서 인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검색엔진의 기능을 비교하고 네이버(NAVER)를 최종 검색엔진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기관명(10종류)”과 “보고서”를 기본 검색어로 1,312건을 검색하여, 878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Roh and Yoon(2013)은 우울증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수 온라인 뉴스만을 다루는 4개 언론사 뉴스미디어를 검색 대상으로 삼고, “우울”, “우울증”, “우울 증상” 및 “우울 장애”를 기본 검색어로 1,600건의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체계적 무작위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220개 기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희농지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년 동안의 인터넷 기사를 네이버(NAVER)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인터넷 뉴스의 검색엔진으로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는 네이버 뉴스검색은 총 401종의 뉴스에 대해 일간지, 방송·통신, 경제·IT, 인터넷 신문, 스포츠·연예, 지역지, 매거진, 전문지·기타 총 8개 카테고리 뉴스를 구분하여 제공하며, 언론사의 카테고리 별 또는 각 언론사별 선택적 용과 기간설정, 기본검색 및 상세검색, 정렬방법 등의 다양한 검색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구글(Google)과 네이트(Nate)는 검색결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제공되는 뉴스 수 또한 적어 제외하였다. 그리고 다음(Daum) 뉴스검색은 네이버 못지않은 많은 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언론사 뉴스검색 기능을 제공하나 언론사의 카테고리별 또는 각 언론사별 선택적용 기능 등 검색옵션 기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제공되는 언론사 대부분이 네이버와 겹침으로 최종적으로 네이버를 선택하였다.

검색의 옵션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효

과적으로 최대한 정확한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장 효율적인 검색옵션을 찾고자 하였는데,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검색옵션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본검색어로 “유희농지”, “유희지”, “활용”을 설정하였다. 이는 이 단어 중 하나 이상 포함된 문서가 OR 방식으로 검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로 “유희”와 “활용”을 설정하였다. 이는 여러 검색 중에서 유희농지의 활용이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덜 관련된 문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외하는 단어로 “겨울철”, “겨우내”, “농한기”, “유희부지”, “유희공간”, “유희장소”를 설정하였다. “겨울철”, “겨우내” 및 “농한기”를 제외단어로 설정한 이유는 벼농사를 짓고 난 늦가을부터 모내기하기 전 이른 봄까지 경작되지 않는 농지의 상태를 지칭하는 휴경농지의 검색 건수가 매우 많아 이러한 기사가 검색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고, 같은 이유로 유희농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휴경농지”는 기본검색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언론사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401개 전체를 선택하였고, 정렬방법은 정확도, 검색영역은 전체를 설정하였다. 검색옵션 상세내용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와 같이 검색한 결과 관련 뉴스는 총 7,971건이 검색되었고, 각 기사에 대한 연관성 확인을 실시하였다. 연관성 확인은 검색된 기사를 일일이 읽어보고,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유희농지 활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확도 순으로 검색되었기 때문에 총 7,971건 중 1,594번째 이후 기사부터는 “유희”, “활용” 두 단어만 포함된 본 연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들로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1,593개의 기사 중 연관성이 확인된 기사는 그 내용을 발췌하였



Figure 2. Contents of Setting Options in NAVER News Search

다. 기사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기사 즉, 같은 내용을 여러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처음 검색된 기사 기준으로 내용을 발췌하여 중복을 차단하였다. 이렇게 발췌된 1,593개 기사 중 중복되는 기사는 평균 3.2건이고, 손실률은 67%에 달했으며, 최종 165개의 기사를 발췌하였다. 이렇게 손실률이 큰 이유는 “유희지”라는 용어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의 “노는 땅”의 의미로도 많이 활용됨으로 유희농지 활용 사례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가 많이 포함되었으며, 유희농지 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도 많이 검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기사분석을 통한 활용유형 도출 방법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의사소통 수단 상에서 드러난 표현 혹은 잠재적인 내용을 그 의미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한 상징과 주제를 분류화, 도표화, 평가화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Krippendorff, 2004). 이러한 내용분석 기법은 전통적으로 저널의 기사 혹은 영상매체의 내용을 어휘의 빈도를 통하여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Lee et al., 2008). 분석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검색된 기사들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전문을 발췌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활용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활용내용, 지역(도단위), 세부지역(시군단위), 주제, 아이템, 그리고 활용목적에 따라 키워드 1, 2, 3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활용내용은 유희농지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주요내용을 나타내며, 주제는 유희농지 활용의 주체를, 아이템은 농업적 활용일 경우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를 나타낸다. 해당 유희농지의 활용 목적에 따라 키워드는 최대 3개까지 입력하였는데, 키워드 1은 유희농지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기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활용목적을 나타내며, 키워드 2와 3으로 갈수록 추가적인 목적을 나타낸다. 이러한 키워드의 단계는 각 기사별 내용분석을 통해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유희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하였으면 포괄적인 목적이 농업이 되어 키워드 1은 “농업”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생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목적이 재배된 작물을 주변 고아원에 기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키워드 2는 “사회봉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존재하면 키워드 3에 입력하고, 만약 세 번째 목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키워드 3에 키워드 2인 “사회봉사”를 기재하여 모든 사례가 3개의 키워드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검색된 기사별 키워드 1의 빈도는 농업이 가장 앞도적인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 경관, 관광, 생태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유형 도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키워드 1에 대한 연도별 기사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1 중에서 전체기사의 80%정도 차지하는 “농업”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2의 연도별 기사의 빈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희농지 활용유형은 활용목적의 빈도를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주목적과 세부목적과의 빈도흐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하였으며, 이 그림들에 나타난 키워드의 빈도흐름을 기초로 9개의 유희농지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III. 결론 및 고찰

1. 내용분석을 통한 주요 키워드별 빈도

발췌된 165개의 유희농지 활용 기사의 빈도를 지역별 및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최대값인 24건이며, 최소값은 제주도 및 전라도가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16.5건, 표준편차가 3.72로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으나,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산지가 많은 지역이 다소 기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중산간 지역 등 경사가 급하거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가 유희화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이유와 관련하여 산지가 많은 지역의 기사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10개년 간 연도별로 살펴본 빈도는 평균 16.5건, 표준편차는 9.21로 연도별 기사의 빈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도와 2013년도의 유희농지 활용 기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은 국제적 곡물파동이 발생하여 곡물가격이 폭등한 해로서 유희농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은 이웃국가인 일본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경작방기지 재생이용대책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해이기도 하다. 이후 2013년에 다시 유희농지 활용 관련 기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희농지 활용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인 해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2015년부터 유희농지 활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Table 2. Frequency of Articles on Utilizing Idle Farmland(Regional Groups by Year)

지역 연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타		합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200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2%	1	0.6%	1	0.6%	1	0.6%	0	0.0%	5	3.0%
2005	0	0.0%	0	0.0%	2	1.2%	3	1.8%	0	0.0%	1	0.6%	1	0.6%	1	0.6%	2	1.2%	1	0.6%	11	6.7%
2006	3	1.8%	0	0.0%	0	0.0%	1	0.6%	1	0.6%	0	0.0%	1	0.6%	1	0.6%	0	0.0%	1	0.6%	8	4.8%
2007	3	1.8%	2	1.2%	0	0.0%	4	2.4%	0	0.0%	2	1.2%	1	0.6%	1	0.6%	0	0.0%	3	1.8%	16	9.7%
2008	6	3.6%	1	0.6%	2	1.2%	4	2.4%	1	0.6%	4	2.4%	3	1.8%	5	3.0%	0	0.0%	3	1.8%	29	17.6%
2009	2	1.2%	1	0.6%	1	0.6%	2	1.2%	2	1.2%	0	0.0%	3	1.8%	1	0.6%	0	0.0%	1	0.6%	13	7.9%
2010	3	1.8%	1	0.6%	1	0.6%	0	0.0%	2	1.2%	0	0.0%	3	1.8%	2	1.2%	2	1.2%	0	0.0%	14	8.5%
2011	3	1.8%	2	1.2%	0	0.0%	2	1.2%	1	0.6%	1	0.6%	2	1.2%	1	0.6%	0	0.0%	1	0.6%	13	7.9%
2012	1	0.6%	3	1.8%	3	1.8%	2	1.2%	2	1.2%	2	1.2%	2	1.2%	2	1.2%	1	0.6%	1	0.6%	19	11.5%
2013	3	1.8%	5	3.0%	4	2.4%	1	0.6%	3	1.8%	4	2.4%	2	1.2%	5	3.0%	6	3.6%	4	2.4%	37	22.4%
합계	24	14.5%	15	9.1%	13	7.9%	19	11.5%	12	7.3%	16	9.7%	19	11.5%	20	12.1%	12	7.3%	15	9.1%	165	100.0%

농지활용의 대표적인 유형을 농지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1차적인 목적에 따라 농업, 산림, 경관, 관광, 생태환경 및 기타 등 6개의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키워드별로 빈도를 살펴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활용한 유휴농지가 131건으로 전체 활용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농지법 제3조)”는 국가적인 기본이념, 농지전용의 요건과 절차의 까다로움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휴농지를 다시 농지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활용방안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유휴농지 활용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유휴농지 활용의 1차적인 활용 목적이 농업이라 하더라도 2차, 3차의 추가적인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추가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활

용유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여기서 1차, 2차, 3차적 활용목적의 순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1차의 경우는 유휴농지의 포괄적인 활용 상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2차, 3차로 갈수록 추가적인 활용목적의 중요도를 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4차 이상의 활용목적이 몇몇 기사에 존재하나 4차 이상은 제외하였다. Table 5는 전체기사 165건 중 131건을 차지하는 “농업”적 활용의 2차적인 활용목적에 토대로 활용유형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2차 목적의 주요 키워드는 사회봉사, 고소득, 축산업, 경관, 주말농장 등이 있다.

“농업”적 활용 131건의 지역별연도별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165건과 비슷하게 지역적으로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도 2008년도와 2013년도에 더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적으로 활용한 131건의 유휴농지 활용사례 중 47건(35.9%)이 사회봉사라는 2차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고소득 42건(32.1%), 축산업 14건(10.7%), 경관 10

Table 3. Frequency of Articles on Utilizing Idle Farmland(Primary Keyword by Year)

키워드 연도	농업		산림		경관		관광		생태환경		기타		합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2004	4	2.4%	1	0.6%	0	0.0%	0	0.0%	0	0.0%	0	0.0%	5	3.0%
2005	10	6.1%	1	0.6%	0	0.0%	0	0.0%	0	0.0%	0	0.0%	11	6.7%
2006	5	3.0%	1	0.6%	1	0.6%	0	0.0%	0	0.0%	1	0.6%	8	4.8%
2007	13	7.9%	0	0.0%	1	0.6%	0	0.0%	0	0.0%	2	1.2%	16	9.7%
2008	26	15.8%	2	1.2%	0	0.0%	1	0.6%	0	0.0%	0	0.0%	29	17.6%
2009	12	7.3%	0	0.0%	1	0.6%	0	0.0%	0	0.0%	0	0.0%	13	7.9%
2010	11	6.7%	1	0.6%	2	1.2%	0	0.0%	0	0.0%	0	0.0%	14	8.5%
2011	9	5.5%	1	0.6%	1	0.6%	0	0.0%	1	0.6%	1	0.6%	13	7.9%
2012	12	7.3%	2	1.2%	2	1.2%	1	0.6%	2	1.2%	0	0.0%	19	11.5%
2013	29	17.6%	3	1.8%	3	1.8%	1	0.6%	0	0.0%	1	0.6%	37	22.4%
합계	131	79.4%	12	7.3%	11	6.7%	3	1.8%	3	1.8%	5	3.0%	165	100.0%

Table 4. Secondary Keyword Frequency of Idle Farmland Articles which its Primary Keyword is Agriculture(by year)

연도	사회봉사		고소득		축산업		경관		주말농장		기타		합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2004	1	0.8%	3	2.3%	0	0.0%	0	0.0%	0	0.0%	0	0.0%	4	3.1%
2005	1	0.8%	4	3.1%	0	0.0%	1	0.8%	3	2.3%	1	0.8%	10	7.6%
2006	2	1.5%	0	0.0%	0	0.0%	1	0.8%	0	0.0%	2	1.5%	5	3.8%
2007	7	5.3%	2	1.5%	1	0.8%	2	1.5%	0	0.0%	1	0.8%	13	9.9%
2008	6	4.6%	8	6.1%	7	5.3%	2	1.5%	2	1.5%	1	0.8%	26	19.8%
2009	4	3.1%	6	4.6%	0	0.0%	2	1.5%	0	0.0%	0	0.0%	12	9.2%
2010	4	3.1%	5	3.8%	2	1.5%	0	0.0%	0	0.0%	0	0.0%	11	8.4%
2011	2	1.5%	7	5.3%	0	0.0%	0	0.0%	0	0.0%	0	0.0%	9	6.9%
2012	8	6.1%	2	1.5%	0	0.0%	1	0.8%	1	0.8%	0	0.0%	12	9.2%
2013	12	9.2%	5	3.8%	4	3.1%	1	0.8%	3	2.3%	4	3.1%	29	22.1%
합계	47	35.9%	42	32.1%	14	10.7%	10	7.6%	9	6.9%	9	6.9%	131	100.0%

건(7.6%), 주말농장 9건(6.9%), 기타 9건(6.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휴농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사회봉사나 고소득 농업, 경관 및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세부적인 목적에 따른 다양한 유형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3단계 키워드 도식화를 통한 유휴농지 활용유형 도출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각 사례별로 활용목적에 나타내는 키워드 1, 2, 3을 설정하였고,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Figure 3, 4, 5, 6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Figure 3. Flow Chart of Agricultural Subkeyword

Figure 3은 키워드 1이 농업인 131개의 기사에 대한 키워드 2와 3의 빈도를 추가하여 도식화한 그림이다. 키워드 2가 사회봉사인 기사들은 키워드 3에서 사회봉사 키워드 이외에 추가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소수의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소득, 축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키워드 2가 경관인 기사들은 키워드 3이 모두 관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키워드 2가 관광인 기사도 키워드 3이 모두 경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관이라는 세부 목적으로 농업활동을 하는 유희농지의 경우 모두 세세부 목적이 관광이며, 반대로 관광이라는 세부 목적으로 농업활동을 하는 유희농지의 경우는 세세부 목적이 경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ure 3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유희농지의 주요 활용유형은 사회봉사농업형, 고소득농업형, 축산농업형, 관광경관농업형, 주말농장형, 농업체험학습형 등 총 6종류이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Figure 4를 통해서 고소득산림형, 생태경관산림형을 도출하였으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Figure 5를 통해서 Figure 3을 통해서 도출되었던 관광경관농업형이 똑같이 도출되었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그림인 Figure 6의 경우 대부분 빈도가 3이하로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만 유희농지의 자연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빈도가 3인 생태환경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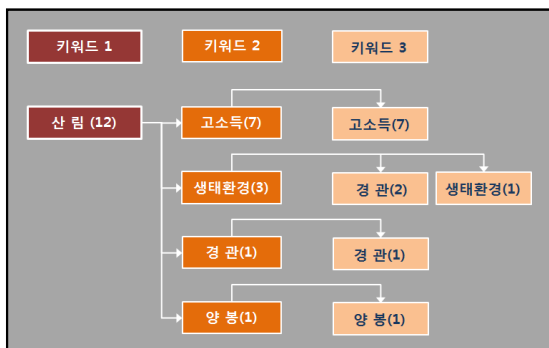


Figure 4. Flow Chart of Forest Sub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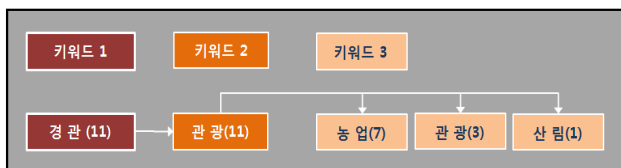


Figure 5. Flow Chart of Landscape Subkeyword



Figure 6. Flow Chart of Other Subkeywords

3단계 키워드 빈도흐름을 도식화한 그림들을 통해 총 9개의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유형은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⑧농업체험학습형, ⑨생태환경형이며 나머지 소수 유형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및 ⑧농업체험학습형 등 6개 유형은 유희농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한 유형이다. 여기서 빈도가 가장 높은 ①사회봉사농업형은 지자체, 읍면동 또는 새마을협의회 등의 민 또는 관 단체가 주변 유희농지를 활용하여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인근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사회봉사를 실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이 유형은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신문에서 기사화하기 용이한 소재이기 때문에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②고소득농업형은 유희농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유형이다. 여기에는 중산간이나 경사지 등에 많이 발생하는 유희농지의 특성상 그러한 환경에 맞는 고소득 작물들을 선정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와 경북 등 산간이 많은 지역의 기사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활용된 작물로는 고사리, 산채, 오미자, 한약재 등이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유형은 ③관광경관농업형이다. 유희농지가 전용되어 시설을 짓는 등의 관광 목적이 아니고서는 농

Table 5. Frequency of Articles on Utilizing Type of Idle Farmland(by Regional Groups)

지역	사회봉사 농업		고소득 농업		관광경관 농업		축산농업		주말농장		고소득 산림		생태경관 산림		농업체험 학습		생태환경		기타		합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강원도	4	2.4%	8	4.8%	1	0.6%	2	1.2%	1	0.6%	2	1.2%	3	1.8%	1	0.6%	0	0.0%	2	1.2%	24	14.5%
경기도	7	4.2%	2	1.2%	1	0.6%	2	1.2%	2	1.2%	0	0.0%	0	0.0%	0	0.0%	0	0.0%	1	0.6%	15	9.1%
충북	2	1.2%	1	0.6%	2	1.2%	2	1.2%	2	1.2%	2	1.2%	0	0.0%	0	0.0%	0	0.0%	2	1.2%	13	7.9%
충남	6	3.6%	1	0.6%	5	3.0%	2	1.2%	2	1.2%	1	0.6%	0	0.0%	0	0.0%	1	0.6%	1	0.6%	19	11.5%
전북	2	1.2%	6	3.6%		0.0%	1	0.6%		0.0%	0	0.0%	1	0.6%	0	0.0%	1	0.6%	1	0.6%	12	7.3%
전남	1	0.6%	5	3.0%	3	1.8%	1	0.6%	1	0.6%	2	1.2%	0	0.0%	0	0.0%	0	0.0%	3	1.8%	16	9.7%
경북	6	3.6%	8	4.8%	1	0.6%	2	1.2%	1	0.6%	0	0.0%	0	0.0%	0	0.0%	0	0.0%	1	0.6%	19	11.5%
경남	8	4.8%	7	4.2%	3	1.8%		0.0%		0.0%	0	0.0%	0	0.0%	1	0.6%	0	0.0%	1	0.6%	20	12.1%
제주도	2	1.2%	4	2.4%	2	1.2%		0.0%		0.0%	0	0.0%	1	0.6%	1	0.6%	1	0.6%	1	0.6%	12	7.3%
기타	9	5.5%	1	0.6%	1	0.6%	2	1.2%		0.0%	0	0.0%	0	0.0%	0	0.0%	0	0.0%	2	1.2%	15	9.1%
합계	47	28.5%	43	26.1%	19	11.5%	14	8.5%	9	5.5%	7	4.2%	5	3.0%	3	1.8%	3	1.8%	15	9.1%	165	100.0%

업과 경관 그리고 관광 세 개의 키워드가 기사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작물로는 메밀꽃, 연꽃, 유채, 청보리 등이 있다. 주로 꽃이 피는 작물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을 유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④축산농업형, 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유휴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말농장으로 개발하고 일반인에게 임대해주는 ⑤주말농장형 등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농업적 활용 이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그리고 ⑨생태환경형이 도출되었다. ⑥고소득산림형은 유실수 등을 유휴농지에 식재하여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뽕나무, 매실나무, 엄나무, 밤나무 등이 대표적인데, 이 유형은 넓은 의미에서 농업적으로 활용한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⑦생태경관산림형은 ⑥고소득산림형과 마찬가지로 유휴농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화하는 사례이지만, 다른 점은 소득을 위한 나무식재가 아닌 경관과 산림으로의 친이를 위한 식재이다. ⑧농업체험학습형은 학생 등이 영농 체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농지를 활용한 유형으로 주말농장형과는 다른 활용목적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유형인 ⑨생태환경형은 ⑦생태경관산림형과 비슷한 유형이나 다른 점은 나무식재를 통한 산림화가 주가 아닌 습지화 또는 자연 친이를 통한 생태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며, ⑦유형과 함께 유휴농지가 농지로서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⑩기타 유형에는 농지를 전용하여 관광휴양시설 또는 휴양지로 활용하는 경우,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경우, 농업적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경관형, 미꾸라지 양식 또

Table 6. Frequency of Articles on Utilizing Type of Idle Farmland(by Year)

연도	사회봉사 농업		고소득 농업		관광경관 농업		축산농업		주말농장		고소득 산림		생태경관 산림		농업체험 학습		생태환경		기타		합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2004	1	0.6%	3	1.8%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5	3.0%
2005	1	0.6%	4	2.4%	1	0.6%	0	0.0%	3	1.8%	1	0.6%	0	0.0%	0	0.0%	0	0.0%	1	0.6%	11	6.7%
2006	2	1.2%	0	0.0%	2	1.2%	0	0.0%	0	0.0%	0	0.0%	1	0.6%	2	1.2%	0	0.0%	1	0.6%	8	4.8%
2007	7	4.2%	2	1.2%	2	1.2%	1	0.6%	0	0.0%	0	0.0%	1	0.6%	0	0.0%	0	0.0%	3	1.8%	16	9.7%
2008	6	3.6%	8	4.8%	2	1.2%	7	4.2%	2	1.2%	1	0.6%	0	0.0%	0	0.0%	0	0.0%	3	1.8%	29	17.6%
2009	4	2.4%	6	3.6%	3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3	7.9%
2010	4	2.4%	5	3.0%	2	1.2%	2	1.2%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14	8.5%
2011	2	1.2%	7	4.2%	1	0.6%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1	0.6%	12	7.3%
2012	8	4.8%	2	1.2%	2	1.2%	0	0.0%	1	0.6%	2	1.2%	0	0.0%	0	0.0%	1	0.6%	2	1.2%	18	10.9%
2013	12	7.3%	6	3.6%	4	2.4%	4	2.4%	3	1.8%	1	0.6%	2	1.2%	1	0.6%	2	1.2%	4	2.4%	39	23.6%
합계	47	28.5%	43	26.1%	19	11.5%	14	8.5%	9	5.5%	7	4.2%	5	3.0%	3	1.8%	3	1.8%	15	9.1%	165	100.0%

는 미역다시마 건조 등 어업을 목적으로 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휴농지 활용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10년간 유휴농지 활용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유휴농지 활용사례 기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의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색엔진으로 네이버(NAVER)를 선정하였다. 검색옵션으로는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기본검색어로 설정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1차적으로 유효기사 1,593개가 검색되었고, 중복과 비관련 기사를 제외하여 총 165개 기사를 발췌하였다.

발췌된 기사는 각각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활용내용, 지역(도단위), 세부지역(시군단위), 주제, 아이템, 그리고 활용목적에 따른 키워드 1, 2, 3의 항목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지역별 및 연도별 빈도를 통해 지역적 차이와 내외부환경에 따른 연도별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통해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⑧농업체험학습형, ⑨생태환경형 등 9개의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9개의 유형은 지난 10년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졌던 유휴농지 활용의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공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 유휴농지 활용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세부적인 구조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각 유형별로 대표기사를 선정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추가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1. Bea, S. J., Yoon, S. S., Park, J. S. and Yoon, H. I., 2010, Exploring Practical Use and Case Planning of the Abandoned Farmlan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6(3), 185-197.
 2. Choi, H. J., Ji, D. S., Choi, S. and Kim, S. J., 2005,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Idle Agricultural Lan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3. Kim, K. C., Park, C. W., Cho, S. H., Jeon, Y. M. and Koo, S. M., 2014a, Development of Policies and Business Models of Utilizing Idle Farmlan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0(1), 91-104.
 4. Kim, K. C., Park, C. W., Cho, S. H., Choi, J. G., Yoon, S. S., Son, Y. H., 2014b, Establishing Evaluation Indicator for Agricultural Utilization of Idle Farmlands and Field Appli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2), 127-137.
 5. Kim, H. M & Choi, Y. K., 2010, A Study on the Impact of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using Citation Analysis of the Internet New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161-181.
 6. Kim, S. S., Hwang, U. S., and Huh, J. N., 2007, Study on Activating Farmland Bank and Management Plan for Idle Farmland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7.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8, Report on Actual Condition of Idle (Noncropping) Farmlands.
 8.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3, Study on the Plan to make High-Inco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Utilizing Idle Farmland.
 9.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SAGE, 440.
 10. Lee, D., Lee, J. S., 2008, Comparison between Landscape Photographic Albums in Webpages of Agriculture and Mountain Villages Using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4(4), 47-56.
 11. Lee, H. B., 2001, A Study on the Fallow of Depopulation Area in Rural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4(1), 74-90.
 1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2013~2017 Developmental Plan for Agriculture, Farm Village and Food Industry.
 13. Park, S. D. and Kim, S. S., 2005, Actual Cond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Noncropping Farmland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tudies, 61, 5-27.

14. Rhee, S. Y., Kang, H. K. and Lee, S. J., 2009, The Abandoned Farmlands Status and Management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5(1), 15-29.
15. Roh, S. & Yoon, Y., 2013, Analyzing Online News Media Coverage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접 수 일: (2014년 8월 15일)

수 정 일: (1차: 2014년 8월 31일, 2차: 9월 20일
3차: 9월 22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22일)

■ 3인 익명 심사필